



"자비로 모두 큰사람 됐으면..."

범어사 찾은 천주교 정명조 주교

됐다. 성오 스님은 "방문에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이 종교간 화해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주교는 "부처님 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의 마음에 듭뭍 떨어들어 자기 것만 챙기는 마음이 순화되어 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축복메시지를 전했다.

성오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천주교의 사랑이 합쳐지면 국민의 화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길 바라며 성탄절에 찾아 뵙겠다"고 답했다.

정명조 주교는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하고 계시던 경봉 스님께서 써주신 탐진대해수 산호출가사-큰바다의 물을 모두 마셔버리니 산호의 가지가 드러난다"라는 글을 방에 걸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천주교 부산교구장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가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9일 범어사를 공식 방문했다. 교구장인 주교가 직접 사찰을 방문, 부처님 오신날 공식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종교간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의 환대를 받은 정명조 주교는 "군중으로 있을 때 절에 자주 들렀다"는 말로 인사를 건



용틀임하는 휘호

일필휘지. 큰붓이 힘차게 나래를 퍼져 하얀 한지위에 용틀임이인다.

울산 리홍재 선생(울림서도원장)은 11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아단법석 대법회'가 열린 안동 봉정사에서 봉축휘호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파사형정(破邪顯正) 불(佛) 용(龍) 봉(鳳) 등 네 글귀를 써내려간 리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했다. 리씨는 이날 퍼포먼스에 앞서 삭발을 단행. "서에는 곧 마음"이라는 평소의 뜻을 행동으로 보였다. 봉정사=이윤호 기자



일주문

이날 모금된 성금은 백혈병 환자에게 전액 전달됐다.

정흥교도소 위문법회
정업 선각종 종정은 총무원장 정암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4일 장흥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문하는 위문법회를 가졌다.

백혈병 환자들끼리 국악마당
영조 생명나눔 실천회 광주지역 본부장은 11일 무등산 중삼사에서 백혈병 환자들끼리 기금마련을 위한 '생명나눔 국악마당' 행사를 열었다.

6시30분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인도·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한국 JIS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서영훈 대표 등 사회계명인사들이 참석한다.

동국대 개교 97돌 기념행사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8일 교내 예술극장에서 개교 97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장기근속자와 학교발전 등에 공이 큰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을 수여했다.

생활참선교실 개설
하산 우곡선원장은 16일부터 7월9일까지 생활참선 교실을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이며 진리, 수행, 깨달음을 주제로 진행된다.

유네스코 문화교류 팀장에
이진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실장은 2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팀장에 임명됐다.



조계종 나눔의 집 등 5백만원 전달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8일과 9일 노인복지시설인 경기도 파주 관음대비원과 정신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 5백만원씩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또 중앙종무기관은 8~10일 종로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가장 등 10가정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고 매일 10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태고종 민족화합 기원법회

태고종 강원총무원(원장 백운)은 4일 춘천 베어스타운 관광호텔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나라의 발전과 민족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영성스님, 총무원장 인국스님, 백운 강원총무원장과 강원교구 산하 각 사암 주지 및 교인, 최병구 강원부지사 한승수 국회의원 당선자, 유종수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했다.



수원봉축위 월드컵 성공기원 축제

수원시봉축위원회(위원장 성주·유화사 주지)는 6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통일과 월드컵 성공기원'을 기원하는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수원지역 4개 청년회 연합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축제는 영산대제, 봉축 법요식, 연등행렬, 통일기원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호국원광사 창건 31주년 기념법회

호국원광사는 4월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초청, 국방원광사 창건 31주년 기념 및 진급불자 축하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장으로 진급한 이종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정대 스님으로부터 진급기념 선물과 꽃다발을 받았다.



12회 흥법대상 선정

군포교 이희용 법사, 교법사 김남일 법사, 일반 박용하·진병길씨

불심흥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12회 흥법대상 수상자로 군 포교대상에 이희용 법사, 교법사 포교대상에 김남일 법사, 일반 포교대상에 박용하 불국로 사무국장과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현재 군승단 원로법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희용 법사는 1977년 군종 법사로 임관한 후 그 동안 장병 및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 포교와 군승법사의 수행 및 포교활동 지원 등 군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명성여중 김남일 교법사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화활동을 연계 청소년 포교로, 박용하 불국로 사무국장은 어린이 포교활동과 불교, 사회복지의 저변확대로, 진병길 원장은 경주지역 전통문화 창달과 불교 흥포에 앞장 서은 노력으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6월 6일 신창농원. 부산=천미희 기자

8회 불다대상 시상

사회봉사 인성스님, 효행 김계호씨, 문화예술 송영화 씨

불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김정부)은 7일 제주갈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제8회 불다대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부문 송영화 씨(78), 효행부문 김계호씨(41), 사회봉사부문 인성스님(죽림정사) 등이다.

"여성권익·사회참여 신장"

여성특위장 맡은 백경남 교수

"문명시대의 대변역기인 21세기는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특히 불교가 정신문화 선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성들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8일 정부 여성특별위원회에 임명된 백경남 동국대 교수(59, 사회과학대학원장)는 여성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불교여성의 약진을 기대했다. 백경남 위원장은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승격하고 내실있는 여성 정책을 추진해 여성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의 중추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위원장은 그동안 여성운동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도필선 기자

"화합 보여주고 싶었어요"

삼소회 사진전 연 원현성씨

"화합이죠. 모두가 하나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연애에 따라 맺어진 종교는 달라도 결국엔 같은 길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개인전을 잘 마당에서 연 사진작가가 있다. 제목부터 이색적이다. '아단법석'. 4일부터 10일 동안 '삼소회-자비 사랑 은혜 그리고 화합'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 원현성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46점의 작품은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가 지난해 5월 '북한어린이 돕기 합창제'를 준비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뤘다.

원씨에게 사진은 하나의 수행이다. "편향된 마음으로 찍으면 사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진찍기 전에 꼭 108배와 기도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은자 기자

개국 10주년
www.bbsfm.co.kr

서울 FM101.9MHz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대구 FM 94.5MHz
청주 FM 96.7MHz

연꽃피는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느낌,
젊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를 열어 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친구,
친근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끗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02)705-5114/FAX(02)705-5229
후원회 ARS전화 (02)700-0108